

# 말라리아 예방 안내문



## 우리는 말라리아 발생국가입니다.

-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모기에게 물려 감염되는 급성열성질환으로, 인천, 경기-강원 북부지역에서 5월 ~ 10월에 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.
- 말라리아는 암컷 모기가 산란을 위해 주로 밤 10시~새벽 4시에 흡혈하고, 3~4일 이후 눈이나 웅덩이 등에 산란을 합니다.
  - \* 주요 산란장소: 눈이나 물 고인 웅덩이(늪, 호수, 저수지, 빗물 고인 웅덩이, 미나리밭) 등

## 말라리아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다음의 수칙을 지켜주세요.

### 개인 예방 수칙

- 말라리아 매개모기는 야간에 활발하게 활동하므로 해질녘에서 새벽시간에는 외출을 자제하세요.
-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창문과 출입문에 방충망을 설치하고, 취침시에는 모기장을 사용하세요.
  - \* 모기장에 구멍난 곳이 없는지 확인!!
  - \* 모기향은 장시간 사용시 사람에게 흡입 가능하므로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을 금지하세요.
- 모기는 어두운 색을 좋아하므로 외출 시에는 밝은 색의 긴 팔, 긴 바지를 착용하세요.
- 땀은 모기를 유인하므로, 야외 작업(축사, 농촌활동 등) 후에는 반드시 샤워하세요.
- 모기 기피제와 살충제를 사용할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의약외품을 사용하세요.
  - \* 사용 전 제품설명서에 명시된 사용법, 용법 및 용량 주의사항 확인

### 모기 방제 및 예방수칙

- 말라리아 매개모기는 목장 또는 축사주변에 많이 모이므로 유문등을 설치합니다.
  - \* 유문등은 다른 불빛이나 바람의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



- 모기가 산란할 수 있는 웅덩이 등 고인 물을 제거하세요.
- 모기 유충의 서식처인 축사주변의 물, 논, 관개수로, 웅덩이, 하천변, 정화조 등은 자주 확인하여 모기유충을 발견할 경우 보건소에 방제를 요청하세요.

## 말라리아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으로!

- 말라리아 발생지역을 방문하거나 거주민은 발열 등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받고 치료 받으세요.
  - \* 말라리아는 신속진단검사로 15분만에 감염여부 확인 가능하고, 검사비용이 보험적용되어 일부만 본인이 부담함